

# 부자들 매달 1226만원 쓴다...일반 가계 3.7배

[2019富보고서]

소비성향은 부자70%, 일반가계30%  
부자 57.3% 상속·증여 받은 적 있어  
총자산 중 약 50% 다시 대물림 예정

부자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이 일반가계의 3.7배인 1226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뜻하는 소비성향은 일반가계가 두 배 이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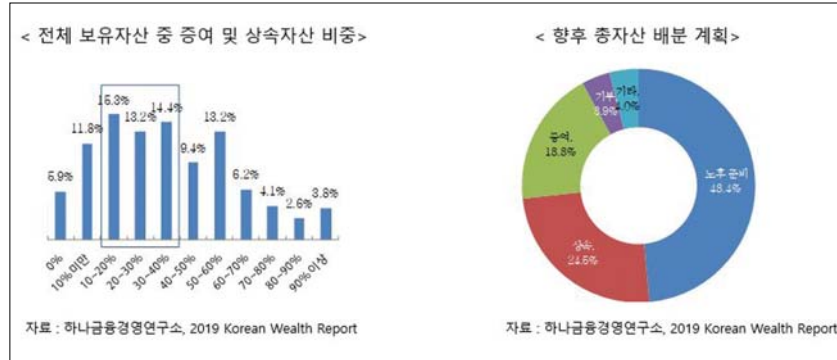
또한 부자들 절반 이상은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부자들 총자산의 절반은 다시 상속·증여될 전망이다.

28일 KEB하나은행이 발표한 '2019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부자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통계청의 2017년 월평균 가계수지 기준 일반가계의 지출액 평균인 332만원에 비해 약 3.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성향은 월평균 소득 3806만원인 부자가 30%이고 445만원인 일반가계는 70%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KEB하나은행 PB고객 중 922명을 설문해 도출했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부자들의 월평균 지출규모가 136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남3구의 서울 부자는 114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3구 부자의 전년 대비 지출 규모는 19.7%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전년도 지출규모가 가장 컸던 60대를 제치고 70대 부자들이 선두에 올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활동적인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문화생활과 사회활동 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산규모와 소득별로는 보유 금



용자산과 총자산 소득이 많을 수록 월평균 지출 규모가 커졌다. 부자들은 앞으로 문화와 레저 비용을 늘리고 의류 등 잡화 비용을 줄일 예정이다. 응답자 72.7%가 문화와 레저 비용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의료비와 의약품비도 36.9%가

확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류와 잡화 비용은 응답자 47.2%가, 의식비는 42.3%가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지출방식은 '카드'가 제일 많았다. 부자들은 월평균 지출 중 63.5%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다고 말했다. 사용 이유로는 64.1%가 '편리함'을 꼽았다. 반면 현금을 선호하는 경우는 '세금 등 기록이 남는 게 싫어서'가 59.8%를 차지했다. 부자들은 자동차를 가구당 2.31대 보유하고 5.9년마다 바꾼다. 본인 소유 자동차는 평균 1.16대다. 차종은 벤츠(31.8%), BMW(19.5%), 현대 기아차(18.6%), 아우디(10.7%) 순이다. 스마트폰 사용 방식도 조사됐다. 부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이 메신저(부자 81.9%, 일반 75.5%)를 사



용하고 신문이나 기사(71.5%, 54.9%) 등을 봤다. 반면 게임이나 쇼핑 활용 비중은 낮았다.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조사됐다. '상속'과 '부동산'이 주 배경이다. 응답자 57.3%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총 자산 규모가 클 수록 자산이전을 받았다고 응답자가 증가했다. 연소득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자산이전을 받은 경험에 있는 응답자는 44.1%이며 연소득 3~5억원 62.2%, 5억원 이상 62.8%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 거주자들의 상속 및 증여 경험 비중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유 자산 중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 비중이 10~20%가

1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40% 14.4%, 20~30% 13.2%, 50~60% 13.2%를 기록했다. 자산이전을 경험한 응답자는 40~44세 때 받은 비중이 20.3%로 가장 높았다. 36~39세 19.8%, 30~34세 15.4%로 부자들은 이미 40대 중반 이전에 상당 규모의 자산을 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자산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소득이나 투자형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2%가 부동산 투자라고 답했다. 그 밖에 사업소득 20%, 근로소득 18.9%, 금융자산 투자 18.0%, 증여와 상속 15.2% 등 순으로 답했다. 부자들 자산의 절반 가량은 다시 상속·증여될 예정이다. 응답자들은

총자산을 노후자금 48.4%, 상속 24.5%, 증여 18.8%로 배분한다고 답했다. 상속과 증여 대상은 자녀 61.5%, 배우자 35%, 손자와 손녀 1.3% 등 순이었다. 특히 금융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70.1%로 높았다. 상속과 증여 자산 유형으로는 부동산이 44.2%, 현금이나 예금 30.6%, 주식채권펀드 9.2% 등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이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 자산은 연평균 4957만원이다. 또한 부자들 59.7%가 올해 기부에 참여했다.

뉴스

## 부자 절반 "서울 집값은 유지될 것...부동산 안 팔아"



한국 부자 절반이 앞으로 5년 내 부동산 가격이 꺾일 것으로 전망하

면서도 실제 자산을 팔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서울 집값

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조사됐다. 28일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9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 절반인 46%가 현재의 자산 구성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나은행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프라이빗뱅킹(PB) 고객 922명을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 종류와 지역, 자산 축적, 투자 행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1년 전 조사 때 비중(43%)보다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경기를 관망하려는 부자가 다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겠다는 비중은 오

히려 1년 전 25%에서 18%로 축소됐다. 부동산 비중을 확대시키겠다는 비중은 13%로 1년 전(14%) 수준과 비슷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안성하 연구위원은 "지난해 결과와 비교할 때 현재 자산구성을 유지하겠다는 비중이 증가했다"며 "대내외 금융시장

확대됐다. 현 상태로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39%로 높게 나타났다.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답변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다만 지역별 온도차가 심했다. 서울 지역 부동산은 현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답변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서울 집값은 크게

적으로 많았고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은 4%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았다.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부동산 비중이 53.1%로 1년 전 조사 때보다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 거주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48%에서 53%로 늘어난 반면 지방 거주자의 경우 46%에서 43%로 감소했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유 부동산 유형별로는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목적주택(31%), 투자목적주택(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

KEB하나은행 2019 한국 부자 보고서  
부동산 경기 부정적 전망...지역별 편차

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산 변경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전망은 다소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완만하게 침체(34%)하거나 빠르게 침체(11%)하는 등 부정적 답변이 45%로 가장 많았다. 1년 전 수준(38%)보다 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지방 부동산은 침체 전망이 82%로 압도

지역광고·미래창조·정통직필

**湖南新聞**

전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가짜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